한벽문화관, 우수작품시리즈 공개

5월 20일 첫 공연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7회 공연

한벽문화관(관장 김철민)이 한 해 동안 펼칠 2023년 우수작품시리즈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우수작품시리즈는 2022년 전주문화재단 한벽문화관에서 첫 선을 보인 기획시리즈로 관객만족도 100%를 달성하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만족 이유로는 '전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라인업', '연주자의 해설', '특색있는 악기 공연' 등을 꼽았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엔 프로그램을 추가 운영하고, 쉽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악기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먼저 5월 첫 공연은 팝, 발라드, 재즈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크로스오버 아티스트 박현수와 함께한다. 박현수는 JTBC '팬텀싱어' 시즌 3의 레떼아모르의 멤버로 최종 3위에 올랐으며, MBC '복면가왕' 가왕에 등극하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어지는 6월 공연에선 국내 유일, 자매 하프듀오 '하프시스'의 무대가 꾸며진다. 영롱하고 아름다운 하프의 환상적인 듀오가 6월 초여름 아침을 더욱 맑게 빛낼 예정이다.

7월엔 반도네온 연주자이자 작곡가로 왕성한 활동 중인 고상지와 함께한다. 이 무대에선 특별히 피아니스트 김문석, 바이올리니스트 윤종수가 함께 '고상지 트리오'로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선보일 예정이다.

8월에는 국내 최초의 저음현악기 사중주단인 '로워-스트링 콰르텟'이 무대에 오른다. 로워-스트링 콰르텟은 일반적인 현악사중주단과 다르게 바이올린이 없고 비올라 2대, 첼로 1대, 더블베이스 1대로 구성되어 있다. 클래식부터 대중음악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관객들과 소통하고 있는 로워-스트링 콰르텟이 전주한벽문화관에선 또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일지 기대를 모은다.

9월 무대엔 2017년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2위와 청중상을 거머쥐며 화제가 된 피아니스트 원재연이 찾는다. 원재연은 특유의 섬세한 연주력과 화려한 기교로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6회차 공연인 10월은 바이올리니스트 대니구와 함께한다.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 중인 대니구는 JTBC '슈퍼밴드' 시즌 2와 MBC 'TV 예술무대' MC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약하며 관객과의 소통에 힘쓰고 있다.

전주한벽문화관 대표 연말 기획공연은 오후 5시 피아노 리사이틀로 마무리된다. 마지막 시리즈를 장식할 피아니스트 이진상은 게자 안다르 콩쿠르에서 아시아인 최초로 우승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는 쾰른 국제 피아노 콩쿠르, 홍콩 국제 피아노 콩쿠르 등 국내외 유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2018년부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로 임용되어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시민에게 보다 풍성하고 알찬 문화생활을 선사하기 위해 올 한해 다양한 기획시리즈를 마련했다"며 "2023년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시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수작품시리즈 포스터

한편 티켓 가격은 전석 2만원이며,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전주시민, 공연 재관람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로우대 및 학생할인 등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문화재단(jjcf.or.kr), 전주한벽문화관(jt.or.kr) 누리집이나 전화(063-280-7040)로 확인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제5회 대한민국 판놀음' 개최

국립민속국악원, 15일~5월 21일 다양한 명품 무대 만날 수 있어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에서는 오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명인, 명창, 명무와 함께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제5회 대한민국 판놀음' 축제를 연다.

개막공연은 '명불허전'으로 오는 15일 오후 3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축제의 시작, 조상현 명창의 단가-사철가, 김일구 명창의 적벽가 중-장승타령, 신영희 명창의 춘향가 중-사랑가, 왕기석, 신영희 명창과 국악연주단 기악단이 함께하는 단막창극-춘향가 중 어사, 장모 상봉하는 대목, 강정열 명창의 심청가-심봉사 뺑덕이네 잃고 탄식하는 대목, 시나위 합주에 원장현(대금), 최경만(피리), 이동훈(해금), 김무길(거문고), 가야금(송화자), 김영길(아쟁), 김청만(장구), 조흥동 명무의 한량무, 진유립 명무의 살풀이, 신영희, 박양덕, 유영애, 이난초, 유수정 명창의 남도민요 등 최고 예인들의 명품 무대가 펼쳐지며, 사회에는 국악인 오정해가 진행한다.

'별별창극'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단체 8개의 작품이 펼쳐지는 무대로, 4월 19일 전주세계축제조직위 '심청패러독스', 22일 한국중고제판소리진흥원 창극 '로미오와 줄리엣', 26일 고창농악보존회 '이팝:소리꽃', 29일 중앙대 전통예술학부 '니가 이 놈 토끼냐?' 5월 3일 조민지아트컴퍼니 '춘향뎐', 10일 거문고병창클럽 '문제의 숨은 곡 찾기', 13일 유쾌한 악당 '호랑이를 타는 방법', 17일 목성 '바로크판소리심청' 등이 공연된다. 공연 시간은 평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3시이며, 공연 장소는 국립민속국악원 예원당, 예음헌이다.

'토크옛설'은 명인, 명창들이 풀어내는 그 시절 이야기 무대로, 4월 20일 남썰(男舌)은 호쾌한 남자들의 무대로 김일구 명창, 김일구 명인, 정화영 명고, 원장현 명인, 이태백 명인이 출연, 27일 여썰(女舌)은 여장부들의 수다보따리 무대로 신영희 명창, 박양덕 명창, 김영자 명창, 김수연 명창, 강정숙 명인이 출연한다. 이야기진행(사회)은 왕기석 명창이 이끌어 간다.

폐막공연은 계묘년 흑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창극 '산전수전 토별가'-토끼와 별주부의 난세 생존기를 선보여, 전통창극의 진수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관람은 8세 이상 누리집을 통해 예약 가능하며, 전화(063-620-2329) 혹은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왕기석 원장은 "국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의 확대와 참여의 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의 장, 문화와 함께하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공연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소리문화의전당-농진청 어린이집, 협약 체결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12일 전당 연회장에서 농촌진흥청 어린이집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영유아를 위한 다양한 공연 및 특화 예술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영유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예술 향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서현석 대표와 박수경 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해 영유아 문화예술 체험 지원에 상호 협력키로 뜻을 모았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와 영유아 예술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사업 추진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서현석 대표는 "어린이는 우리의 밝은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어릴 적 경험이 평생을 가듯이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 체험 기회를 제공해 전북문화의 새싹으로 자라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소설 아리랑' 릴레이 필사본, 아리랑 문학관에 기증

김제시립 금구도서관은 아리랑문학관에서 지난 11일 '소설 아리랑' 필사본을 기증하고 기증식을 가졌다.

소설 아리랑 릴레이 필사는 정성주 김제시장,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 공직자, 시민, 도서관 이용자 등 132명이 함께하였으며 전 12권 174장, 200자 원고지 2만여 매의 아리랑 전체를 필사했다.

필사 기간은 2022년 9월 26일~12월 30일까지 완료하고 이후 장별로 정리하고 묶어 기증하였다.

기증된 필사본은 아리랑 문학관 2층 필사칸에 전시되며 132명의 명단이 필사본 앞에 기재되어 아리랑문학관을 관람하는 이용자들에게 공개된다.

릴레이 필사에 참여한 김제시민 오소정씨는 "가능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리랑'과 김제를 알리고 싶었고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담아 '가장 느린 독서'의 방법인 필사를 했고, 김제시민의 온 마음을 담아 아리랑을 기억하고 마음속으로 함께 아리랑을 불러 그 노래가 끊이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많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사연으로 필사에 참여했다. 174장중 1인 1장을 기본으로 필사했는데 3장 이상 필사하신 분이 13명으로 필사의 열정을 보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대 강효정 · 백희영 교수, 듀오 리사이틀 14일 개최

전북대학교 강효정 · 백희영 교수(예술대학 음악과)가 14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듀오 리사이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리사이틀에서는 시대별로 음악계를 주름잡았던 보케리니(L. Boccherini), 베토벤(L. v. Beethoven), 바흐(J. S. Bach), 브람스(J. Brahms) 등 4명의 위대한 음악가의 곡이 강 교수의 첼로와 백 교수의 피아노 선율로 봄날의 저녁을 수놓는다.

이날 공연에서는 첼리스트이자 작곡가인 보케리니의 첼로 소나타를 비롯해 클래식 음악사에서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태어나 그 시대 음악계의 흐름을 주도했던 Three B 작곡가 바흐, 베토벤, 브람스의 첼로 소나타가 연주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아는 만큼 보이는 법' 생활법률 특강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전정희)는 12일 도민 40여명을 대상으로 2023년 가족을 위한 생활법률 가이드 '아는 만큼 보이는 법(法)'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강은 도민들이 법률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여 급변하는 사회에서 증가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내용은 △법률 용어 해석 △재판 제도 이해 △최근 이슈로 알아보는 법률 상식 및 대처 방법 등으로 구성, 법률사무소 한샘의 대표 변호사인 서한샘 변호사가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장은성 기자